

# 코로나 영웅들, 완도 해양치유로 재충전

### 완도군, 지난 7월29일 시작해 내달 20일까지 총 12회 예정 현재 111명 참여 만족도 조사 97% '만족' "몸과 마음이 건강"

완도군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애쓴 국민 영웅들을 대상으로 '해양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방역 업체 관계자, 자원 봉사자 등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실시된다.

지난 7월 29일 시작되어 11월 2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 39가구, 111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해양치유와 산림치유, 해양 레저, 섬 관광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1일 차는 사계절 힐링 자원이 풍부한 국내 최대 난대림 완도수목원을 방문하여 치유의 길을 걷고, 문패 만들기 등 공예체험과 판소리 공연을 관람



한다.

2일 차는 슬로시티 청산도를 찾아 해 뜨는 마을, 돌담마을, 서편제 촬영지, 범바위 전망대 등을 둘러본 후 다도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완도 타워를 방문하여 짜릿한 질라인도 체

험한다.

3일 차는 친환경 해변에만 주어지는 국제 인증인 블루플래그를 2년 연속 받은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해양치유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명사십리 해변은 산소 음이온 발생

량이 전국 최대이며 해양에어로졸이 풍부한 곳으로 해변 노르딕워킹과 필라테스, 명상을 하고, 완도에서 생산되는 꽃으로 만든 꽃차, 청산도 보리가 첨가된 디카페인 커피, 해조류가 들어간 해초 떡볶이도 맛본다.

참가자들은 "해양치유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최고의 프로그램이었다.", "해변 노르딕워킹은 처음 접했는데 꾸준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꼭 가족과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85%, '만족'이 12%로 9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양치유가 각광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고가 많은 국민 영웅들에게 해양치유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해양치유를 통해 힐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강진군, 쌀귀리 식품·묵은지 시식회 개선점 찾고 상품 실용화 위한 자유로운 의견 나뉘

강진군이 쌀귀리 가공식품 개발과 묵은지의 대표 특산물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6일 쌀귀리 식품·묵은지 시식회를 강진읍사무소 3층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식회는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는 한편, 쌀귀리 및 묵은지 상품 실용화를 위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시식회에서는 옥이칼국수가 자체개발해 판매 중인 쌀귀리 칼국수와 강진군에서 시판용으로 개발한 쌀귀리 면류(건면, 생면),

쌀귀리 떡, 식혜, 라떼 등 다양한 메뉴가 공개됐다. 특히 쌀귀리 면류는 파스타, 비빔국수, 잔치국수로 구분해 다양한 면요리 시식회가 진행됐으며 강진군 묵은지 시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승욱 군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강진군을 대표하는 식품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시식회 개최를 계기로 더욱 발전된 식품 강진 특산물을 개발·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 '9대 핵심사업' 나왔다"

### 정종순 군수 "장기적 안목 지속가능 성장발전 마련할 것"

장흥군이 26일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 9대 핵심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군정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는 9대 핵심사업과 세부 26건의 주요사업 내용,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은 전남 중남부권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 전략이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중남부권 중

핵도시 힐링강소특구 장흥'으로 비전실현을 위한 핵심사업과 지역발전전략을 정해 추진한다.

9대 핵심사업은 ▲문림의향 전국화 ▲지방소멸위기 대응환경 조성 ▲바이오 웰에이징 클러스터 구축 ▲청년역량의 지역 핵심역량화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 ▲블

루에너지산업 육성 ▲1차산업 역량 강화 ▲참여형 행정 시스템 구축 ▲지역발전 특수과제의 체계적 운영 등이다.

정종순 군수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가운데 지역의 생존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 자원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해남 삼산면 유스호스텔 일대 '산림유역 관리사업' 조성 완료

### 11억 투입 재해방지·경관조성 등...관광활성화도 기대

해남군은 삼산면 유스호스텔 일원에 국비 11억원을 투입해 산림재해에 강하고 산림휴양 기능을 갖춘 '산림유역 관리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자연재해에 강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 조성을 위해 산림수계 유역 전체의 치산, 물 관리, 생태경관조성, 산림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남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두륜산 자락에 위치한 해남 유스호스텔 일원은 상부의 경사가 심한 계곡부가 정비되지 않아 토양침식 및 토석 유실이 진행되면서 집중호우 시 하류 상가지역에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부에 석축을 쌓아 계류의 침식을 방지하고, 계류를 활용한 물놀이장과 목교, 산책로

개설 등 주민 편의시설들을 함께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산림청 2019년 산림유역관리공모사업에 선정, 산림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들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아 추진해 왔다.

또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등을 설계에 반영, 완성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유역관리 사업장에 여름피서객 등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친수공간 및 주민편의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은 내년에도 마산면 상동리 도유림 일원에 산림유역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산림유역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 이동진 진도군수,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장 점검 실시

### 신기지구 전원마을·환경복지센터 방문 애로사항 청취



이동진 진도군수가 개발 사업 현장 등을 잇달아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쳤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환경복지센터 건설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군수는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며,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방문한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진도군의 자원조건을 활용, 도시민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군내면 신기마을 일원에 오는 202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진도군 환경복지센터는 진도읍 포산리 일원에 16억원을 투입, 2층 규모로 진도군 전체 환경미화요원들의 식사와 샤워 등 휴식 공간 등이 조성되었으며, 오는 10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동진 군수는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별 진행 사항을 세심하게 챙겨 균형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